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1호 【루게 제24564호】 주제 103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리일환 동지, 한광상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특근중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동지와 궁전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이 안겨사는 우리 당의 품을 형성한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건축재로 다시 시공하며 모든 시설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그 촘촘하게 갖추어 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개건하면서 홀과 복도에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여 소조원들과 교원들이 늘 수령님과 장군님을 뵈오면서 생활하게 하자고 하시였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움터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1989년 5월에 일떠선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이다.

과학기술소조실, 음악예술소조실을 비롯한 각종 소조실과 활동실, 체육관, 수영관, 극장이 갖추어져있는 궁전에서는 하루 5,000여명의 학생소년들이 여러가지 과외소조활동을 진행하면서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준비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궁전

현관출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보배들이며 앞날의 조선은 우리 어린이들의것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명제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소조운영실대를 료해하시였다.

무용소조원의 춤추는 모습, 가야금과 손풍금을 배우는 소조원들의 연주를 보아주시고 녀중창도 들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예와 콤피터, 수영, 롱구를 배우는 소조원들의 모습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유능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궁전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이 높아야 아이들의 재능의 싹을 제때에 찾아 활짝 꽃피워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교원대렬을 잘 꾸리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게 하고 세계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꿈을 키울수 있도록 내부장식도 새롭고 특색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소조실들을 아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꾸릴뿐아니라 보온과 방음대책도 세워주고 극장과 체육관, 수영관을 완전히 때벗이하며 지방의 학생소년들이 숙식할수 있는 합숙도 잘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이리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근위부대, 영웅부대, 건설교육자부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본받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전선길과 잇닿은 1300여리의 집중수송길

현장지휘부와 각 단위 일군들, 돌격대원들의 투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철주야의 헌직지도에 발걸음을 앞둔 파동들은 청천강용사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신의주까지 왕복 1300여리 집중수송길에 보석처럼 새겨졌다.

지난 5월 18일 현장지휘부와 각 단위 책임일군들이 동승한 10여대의 자동차수송대는 전체 돌격대원들이 마련한 130t의 파철을 서해안의 대상섬비생산지까지 직접 수송해주고 그길로 국경도시까지 뻗어 달려 공사에 긴급히 필요한 중요건설자재들을 싣고오는 강행군수송전투를 치렀다.

장미철전까지의 분조를 다루는 공사일정으로 드라마 속에서도 볼까 3일동안 많은 파철을 수송해주고 마련한 38시간의 집중수송도로 파철과 중요자재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것은 조선속도창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청천강용사들의 승고한 정신세계의 뚜렷한 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모든 단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군공을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5월 상순 어느날 현장지휘부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에 퍼져나갔고 모든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불발된 화약마냥 열렬히 호응해나섰다.

—발전소건설도 설비생산도 우리가 다 맡자!

청천강건설에서 파철수집전투의 불길이 세계에 타올랐다. 자강도, 함경남도려단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파철수집전투도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중요한 사업임을 자각하고 펼쳐나 단 이틀사이에 각각 16t의 파철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도 주변지역에서 파철수집사업을 벌였으며 평양시려단 돌격대원들은 언제공사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는 속에서 두 내부에비를 최대한 탐구중임하였다. 남포시, 철도성, 황해남도, 전력공업성려단과 태권수력발전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파철을 마련하였다.

정지일군님의 이 호소에 심상도 동무들 비롯한 현장지휘부의 모든 일군들이 적극 호응해나섰다. 다음날 해당 일군들과 각 단위 지휘관들의 긴급회의가 벌어졌다. 회의에서는 사상공세로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빠른 시일내에 파철수집전투를 진행함에 대한 문제, 생산기까지 직접 가져다주는 동시에 신의주시에 도착한 중요건설자재들도 집중수송할대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이 소식은 삼시에 온 공사장

을 결심하고 이 길에 나선 우리 청천강용사들이 어닝이나, 오일의 수송길에서 우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자원의 투지와 기개를 남김없이 펼쳤다는 것을 한탄해도 아닌 10여대의 자동차가 만적재한 파철을 싣고 여러 시, 군들을 통과하며 행군하기는 결코 험한 일이 아니었다. 강하천을 가로지른 수량은 다리들을 통과하고 각 구간의 험한 경관들을 수없이 극복해나 갔다. 일부 구간들에서는 수증다리가 건너고. 때로는 타레지에 출몰하는 짐승들이 다가오기도 하여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모두가 머뭇거리고 넘어가 버렸다.

날과 밤을 모른 38시간의 집중수송은 이렇게 청천강용사들의 애국충정의 순간순간으로 이어졌다. 결사관철의 그 정신이 만장약되었기에 남포시와 전력공업성, 철도성려단의 정지일군들과 종영원들이 창천강용사들이 정말 다르다고, 자기들의 임무가 더 무거워진다고 격장을 금지 못하였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같은 조성이하는 원수님을 발전소건설성과로 결사옹위하려는 청천강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은 먼 이온은 중요자재수송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남이 어두워 파철하차작업이 끝났으므로 하여 수송대원들의 육체적피로도 컸고 자동차들마저도 단계를 확보 내뿜었다. 보통 때 같으면 수백리길을 달려온 그 시각 휴식이 선포되어야 하였다. 하지만 한시라도 지체하면 그만큼 공사속도가 빠진다는 자각하고 누구나 출발을 앞서는 전투명령을 기꺼이 받아안았다. 백수십리길을 더 달려 그만으로 화물장까지 차를 들이밀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진행할 예정이던 사차시간을 훨씬 앞당겼다. 하여 집중수송대는 이른 새벽부터 중요자재들을 불이 번쩍 나게 만적재하고 귀로에 오를수 있었다. 사차전투로 아침식사도 변진 상태였지만 운전전투가 제기밖으로 끼니를 예우하며 집중수송대는 또다시 650리수송길을 달리고 또 달려갔다.

날과 밤을 모른 38시간의 집중수송길은 이렇게 청천강용사들의 애국충정의 순간순간으로 이어졌다. 결사관철의 그 정신이 만장약되었기에 남포시와 전력공업성, 철도성려단의 정지일군들과 종영원들이 창천강용사들이 정말 다르다고, 자기들의 임무가 더 무거워진다고 격장을 금지 못하였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같은 조성이하는 원수님을 발전소건설성과로 결사옹위하려는 청천강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은 먼 이온은 중요자재수송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약같이 떨쳐나 공사장적으로 제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6개의 수문기둥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 려단돌격대원들의 양양된 정신적이었다.

려단일군들은 확신성있게 돌격명령을 내렸다. 청천강을 가로막는 가름막이전투의 불길은 세계가 타올랐다.

1월말에 들어 물목이 쭙아지면 공사는 갈수록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미 세운 가름막이 마감날자는 돌격대원들모두에게 있어서 당알에 켜였다. 한치도 드릴수 없는 시간표였다.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집체적저해가 모여 집체적 성능을 높여주고 고장정착이 용이한 방법 등 대담하고 기발한 착상들이 실천에 도입되었다.

더하여 1월 28일 청천강과 안의 150m구간에서 강굴기 기호를 멈추고 가름막이전투장에서는 려단돌격대원들의 승리의 합성이 하늘을 진감하며 울려퍼졌다.

공정별작업대상에 따라 려단적인 힘량의 집중과 분산 그리고 대대별작업의 전문화를 보장한 것은 이 구역의 전투승리를 담보한 기본법칙이었다.

연계기초굴착전투가 한창일 때 려단의 지휘관들은 일부 대대들을 뽑아 연계타입을 위한 준비에 돌리는 동시에 만경구역대대를 새로 굴착전투에 진입시켰다. 도사공작이 기본적으로 끝난 상태에서 능률 높은 침착기를 운용하고있는 만경구역대대를 투입하여 암반굴착속도를 높이자는 의도에서였다. 이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20일간도 안되는 사이에 한 개 대대력량이 한달동안에 수행할 작업량의 근 4배에 달하는 1500m²의 암반을 맡고히 밀어내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연계기초굴착전투에 참가한 려단적인 령량을 총투입하여 한주일동안에 4000m²의 암반을 실적을 기록한 려단에서는 본격적인 수문기둥굴조공사에 들어간 4월 중순에 또다시 려량을 재분성하였다. 4개 대대의 령량만 수문기둥굴조공사에 진입시키고 강동군과 동대원구역대대는 언제화안옹벽공사에, 락포구역대대는 다리보강크리트치기에, 나머지 령량은 발전기실굴조공사에 돌리었다.

결국 려단은 공사장 전구간에서 타입건설을 확정하여 4월에 이어 5월에도 려단앞에 또다시 콘크리트타입계획을 1.5배이상 넘쳐 수행하면서도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기본공정대상으로 정한 수문기둥들을 모두 일떠세울수 있었다.

발전기실 6월까지의 한달 남짓한 기간에 다른 단위에 비해 우뚝 일떠세워 비약의 높은 목표를 또다시 내건 려단장 백종원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 우리 일군들이 이 청천강반에서 당정책위원회의 생애를 직접 걸머지고있는 령장이 투철할 때 절망 못할 바깥이 없구나. 돌격대원들의 모처럼의 양양된 정신력으로 우리 일군들의 각오도 그리고 전투지휘에 따라 더 큰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사관철의 목표, 자랑찬 현실

평양시려단에서는 어떻게 되어 비약적인 속도 내달려 5월말까지 전구간에서의 수문기둥 및 발달장전투를 끝낸 수송정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일군들은 당에 대한 최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한 몸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와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려단의 책임일군들은 통이 큰 목표를 제기했다.

—겨울철에 언제화안의 전구간에서 가름막이전투를 하고 장미철전으로 연계공사를 기본적으로 완성하자!

나무도 나라를 목표로 하는 려단의 일부 일군들은 물론 현행법칙을 따르는 일군들도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려단책임일군들의 결심에는 드림이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가름막이로부터 수문기둥크리트치기의 모든 공정별대상표와 대책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새겨져있었다. 더우기 책임일군들에게 가장 큰 힘으로 뒷받침해주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믿어 나섰

현지 보도

향해남도려단 연계기초콘크리트기전투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대건설전투장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을 천만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여기는 최첨단 연계기초콘크리트기전투장이다. 이른새벽부터 타이엔투에 진입한 향해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불과 3시간이 지난 지금도 한구간의 연계기초콘크리트

를 따라앞서기 위한 투쟁과 위훈으로 부르는 포여들과 구호를, 곳곳에서 세차게 퍼져나가는 불의 기발한, 방수전투에서 힘차게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

전투장까지가 아니라 대형을 짓고 전개된 6대의 혼합기들이 힘있게 혼합물을 쏟아낸다. 그중에서도 신원군대대의 최금산, 윤혁철, 향금일, 향은실, 권명국 동무들이 차지처럼 맞물려서 콘크리트 보강재를 혼합하는 동음이 드높다. 그

따라앞서며 타이엔투장으로 달린다. 혼합물운반을 맡은 각 대대의 돌격대원들이 앞을 다투어 뛰어드는 기초타입전투장은 그야말로 불도가나마냥 끓여버린 전투장이다.

사건발방에서 포위전을 치듯 중심부위를 물뭇나무를 향하여 한치한치 전진하며 혼합물을 쏟아내는 돌격대원들. 증강선이 눈앞에 다가갈 그 시각 남강마을의 너실들이 탐사원단과 대 회사원들인 차명성, 권은영 동무들을 비롯하여 각 대대의 취사원들이 후방을 가리고 나와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준다.

우리가 다가오는 려단지휘부 부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 돌격대원들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틀전에도 우리는 단 9시간만에 700m²에 달하는 방대한 타입량을 해체했습다. 오늘도 아마 더 빠른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새 구간의 연계기초콘크리트기전투장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길게 울린다.

시간을 주름잡으며 하루가 다르게 달려드는 느릿은 전투현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힘찬 금발이 인자돈다.

—연결투쟁의 정신을 배우며 자라난 자력쟁쟁의 강자들이여,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향해남도려단 개천시 대대 대장 김용길동무, 향해남도려단 개천시 대대 대원 김경철동무, 향해남도려단 강령군 대대 참모장 리병국동무, 향해남도려단 통천군 대대 대원 김동진동무, 향해남도려단 은천군 대대 참모장 박원철동무

드세찬 공격전의 열풍

평안남도려단에서

려단정치를 비롯한 사상의 포문을 열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불꽃시킴을 위한 집중조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치고있다. 려단참모부와 일군들은 대중의 양방향에 맞게 전투전략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특히 우수수단을 만가동시키는 데 큰 힘을 넣는 한편 대대별 사투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일정계획을 드림없이 집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대대별 작업 전문화하고 타이엔투를 늘리며 장미철전까지 마쳐진 파열을 무조건 해제하기로 작전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발전기실굴조공사를 맡은 순천시, 북창군대대에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설비조

림이 진척되는데 따라 순천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을 휘둘러 공병의 요구대로 조립하면서 속도를 높여나가고있으며 북창군대대에서는 콘크리트대진작업을 잘 하여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지난 27일부터 회리실부 전투에 진입한 개천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복잡한 시공공정에 따르는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가며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물고기 질형성을 맡은 덕천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공사량의 50%에 선을 통과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한걸음도 절망하지 않고있다.

연계건설을 맡은 평성시대대와 성천군, 은산군대대에서도

위훈의 창조자들



평안남도려단 개천시 대대 대장 김용길동무, 평안남도려단 력포구역 대대 대원 김경철동무, 향해남도려단 강령군 대대 참모장 리병국동무, 평안남도려단 통천군 대대 대원 김동진동무, 향해남도려단 은천군 대대 참모장 박원철동무

역적불변의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를 이룬 주체형의 혁명적당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다.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바로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과 유일적평등에 기초한 당의 조직사상적공화화가 확고히 보장되고있는 데 있다.

수령의 사상으로서 일색화되지 않고 수령의 평등도에 강한 조직적단결성을 이룩하지 못하는 당은 수령의 당, 혁명적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의 역사는 위대한 혁명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평등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대원의 조직사상적공화를 빛나게 실현하여 온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우리 당이 걸어온 자랑찬 도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평등의 자각과 당대의 업적이 령력히 새겨져있다. 평등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평등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었고 그 평등적역할이 보강되어 갔다. 평등적역할이 보강되어 갔다. 평등적역할이 보강되어 갔다. 평등적역할이 보강되어 갔다. 평등적역할이 보강되어 갔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사상적순결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직적당대원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사상적순결체를 이루셨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 당대원을 튼튼히 꾸리고 그 사상의 지적투쟁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은 철두철미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주체확립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대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잠사상체계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을 우리 당의 혁명적 사상, 주체사상으로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밖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나 있을수 없으며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승화되고 움직일수 있다는것이 혁명적당의 전지전능한 수령님께서 견지하여오신 확고부동한 혁명적 령장이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만이 차지하는 사상적순결체를 존엄롭게하고있다. 전체 단원들이 주체형의 붉은 피로 심장을 뚫으며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한길만 걷고있고나가있다는것이 우리 당의 참모습이다. 전당과 온 사회가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신념에 기초하여 평등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있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따라나아가게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의 향도자로 끝없이 빛을 뿌려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평등도체계가 확고히 선 조직적전일체이다.

당의 유일적평등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 원칙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이다.

당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평등을 실현

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평등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는 당의 기초를 쌓고 평등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잘하여야 당의 전투력도 평등력을 높이고 당내외의 정치사상적투쟁과 승리를 거두수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나갈수 있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과제에 관여되어있는 중요한 사상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와 평등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공고화하는 사업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오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평등도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는 중심으로 하는 당의 정치사상적투쟁과 단결이 비쌍강화되고있다. 당의 결집과 지지를 결사관철하며 하나의 사상의지대로 단 사라고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 규율과 질서가 철저히 확립되고 있었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당의 평등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평등은 우리 당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리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전당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신념에 기초하여 평등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있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따라나아가게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의 향도자로 끝없이 빛을 뿌려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평등도체계가 확고히 선 조직적전일체이다.

당의 유일적평등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 원칙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이다.

당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평등을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평등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는 당의 기초를 쌓고 평등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잘하여야 당의 전투력도 평등력을 높이고 당내외의 정치사상적투쟁과 승리를 거두수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나갈수 있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과제에 관여되어있는 중요한 사상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와 평등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공고화하는 사업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오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평등도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는 중심으로 하는 당의 정치사상적투쟁과 단결이 비쌍강화되고있다. 당의 결집과 지지를 결사관철하며 하나의 사상의지대로 단 사라고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 규율과 질서가 철저히 확립되고 있었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당의 평등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평등은 우리 당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리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전당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신념에 기초하여 평등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있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따라나아가게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의 향도자로 끝없이 빛을 뿌려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평등도체계가 확고히 선 조직적전일체이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철정은 우리 혁명의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령으로 모시고있는 수령의 당으로서의 존엄과 위력을 만반의 높이 떨치고있으며 당대원이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공고화되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적역지와 특출한 령도실력, 한없이 고매한 인민적품성을 지니시고 절대적평등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후손에게 물려주고 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평등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서 높이 모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평등과 있고 당의 부름이 려난 산악도 떠나고 바다도 메우는 려단적인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당건설업적을 지침으로 삼고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평등으로서의 존엄과 영광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자 하리라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전형 - 이천땅의 붉은 선동원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이천군 신당축산전문협동농장 제3작업반 2분조 선동원 박연화동무에 대한 이야기

이천군 신당축산전문협동농장 선동원 박연화동무는 1996년부터 올해까지 43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 조국앞에 떳떳하게 내세웠다. 그는 수십명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30년째 사람들과의 존경을 받는 선동원으로 사업하고있으며 농장적으로 소문난 실존론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평범한 어머니들보다 몇갈절 더 무거운 모성의 부담을 스스로 걸머지고도 선동원의 의무, 농장원의 본분에 누구보다 총싹의 온 박연화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이천땅의 어머니선동원앞에 머리를 숙인다.

고결한 헌신으로 이어져온 그의 인생행로는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대강의 한 성원으로 사는 공민이라면, 당원증을 가슴에 품은 조선로동당원이라면 오늘의 시대에 어떤 지향과 책임감을 안고 삶의 순간순간을 빛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마을앞에 오성산으로 가는 길이 있다

우리는 박연화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18년전 분계연선이 가까운 이천 땅의 한 포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때 그는 두 자식을 가진 30대의 젊은 어머니였고 분조의 선동원이었다.

그날 아침도 박연화동무는 선동원의 일과로 작업전에 당보에 실린 기사들을 독보하고있었다. <로동신문>에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맡아 키워 나라의 아픔을 덜어준 훌륭한 사람들의 미풍이 소개되어있었다.

독보가 끝나자 한 분조원이 젓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과려면 남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울수 있을거?...»

22살에 조선로동당이 되었다. 박연화동무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남편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의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어...)

식구가 갑자기 늘어나니 모든것이 부족했다. 집도 좁고 그릇도 수저도 이불도 모자랐다. 대신 부엌아궁과 가마가 늘어났다. 일손과 시간은 모자라고 여겨우의 짐은 몇 갈절 더 무거워졌다.

마을에서 밭짓는 연기가 제일먼저 나고 제일 늦게 불이 꺼지는 집도, 매일같이 아이들의 빨래가 가득 걸려있는 집도 그의 집이었다.

수십명 자식들의 뒤바라지에 젓은 손 말 밑에선, 일감을 놓을새없이 늘 땀방울을 들떠나니 그는 언제 한번 방에 들어와 남편

자식들이 해마다 늘어날수록 박연화동무의 고생은 날마다 커졌다.

농로사냥하던 어느날 밤 박연화동무는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총팡이가 또 집을 뚫쳐나갔던 것이다.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동물루머에야 동구길에 다시 들어선 그는 더이상 발을 내걸을 힘이 없어 눈판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올 결심을 했을 때 어떤 편팡이가 애원하다싶이 하던 말이 돌아치는 눈보라속에 더 쟁쟁히 들려왔다.

«어머니, 난 우리네 식구가 좋아요...»

«마지막 때가 됐어요. 우리네 형제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총팡인 나쁜 아이야요. 갈래면 가져와요.»

어머니는 말했다.

«세상에 나쁜 아이란 없단다. 내가 아직 좋은 어머니 되지 못했어. 이제 나쁜 어머니가 되지 못하게 해주라. 나쁜 어머니가 되지 못하게 해주라.»

그녀가 아이들을 어머니의 품에 더 바짝 안기려다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좋은 어머니요. 우리가 나쁜 아이들이었어요. 총팡인 우리가 몰아쳐서 집을 나갔어요.»

아이들은 어머니와 목소리를 합쳐 총팡이를 부르고 또 불렀다.

«백이 집에 들어서서 총팡이가 머리를 폭 숙이고 서있었다. 아버지가 더운물로 그의 발을 씻어주고있었다. 힘겹게 형제들의 눈치를 보는 총팡이에게 다가가 말기어 아버지대신 그의 발을 붙잡고 씻어주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스스로 찾아가는 애들도 있었다.

박연화동무가 데려온 아이들속에는 리광이라는 4살 난 총파가 있었다. 심한 피부병을 앓고있는 그를 안고 마을에 들어선 낯 낄사람들은 이왕이면 건강한 아이를 데려올것이지 왜 사서 고생을 하는가고 혀를 찼다. 박연화동무는 애를 꼭 끼안고 이렇게 말했다.

«망도 가꾸기듯이 애도 정성을 들이기라지...»

리광을 위해 기울인 그의 지성은 실로 눈물겨운것이었다. 그 애의 병에 류황연기를 쓰이면 좋다는 말을 들은 때부터 박연화동무의 몸에서는 류황연재가 뿌릴줄 몰랐다. 비좁은 비닐막막(집)안에서 리광의 몸에 류황연기를 피워올릴 때마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위수구 하였다.

«우리 땅이 병 연기되어 날아나라.»

리광이는 캐크거리며 웃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힘겨운 육체적고생을 겪고있는지 알 수 없었다. 병든 제 몸을 어머니가 피까지 쏟아 넣어주었다는 사실은 더욱 알지 못했다.

저녁마다 집에서는 하나, 둘, 셋... 생계공부를 하는 리광이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와 함께 손가락을 뽑아가던 리광이가 갑자기 소리를 쳤다.

«엄마, 왜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니?»

결에서 수제를 하던 아이들이 확 오라했다. 땀이 배겨 뺏겨지고 위엄있는 바느질에 쇠뿔까지 쓴 어머니의 손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올랐다. 한끼에 열반이나 쌀을 입어야 하는 손,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어른어른하게 낀 손, 마귀에게 갈라드던 손, 수심마리의 집집승도 치고 농장포전도 가구는 손... 어머니의 손가락에 정성껏 봉래를 잡아 나가는 어린 자식들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박연화동무는 이렇게 43명의 자식들을 키웠다.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100t씩이나 되며 등짐으로 걸어만 들을 수있m의 석축을 하고도 남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실농군에게는 좋은 땅, 나쁜 땅이 따로 없어요.»



«장하다, 내 아들딸들아!»

잡사후 아이들은 서로 어깨동무하고 방안으로 확 밀려들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리광 동무가 안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 시각 박연화동무의 젓은 눈빛은 마을 앞의 큰길을 이루었고 있었다. 리광동무는 안해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그 길은 바로 오성산과 잇닿은 길이였다.»

바라보는 박연화동무의 입가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강정의 어머니구 실을 하기도 힘든데 어찌 동무하고 방안으로 확 밀려들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리광 동무가 안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선동원 나라면? 쉽지 않은 선택의 갈림길에 그는 선동원의 향심을 세웠다.

그날 박연화동무는 밤이 깊도록 잠이 루지 못하였다.

(선동원은 신문에 실린 소행자료를 읽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공처럼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큰 결심을 내리지 않고서는 분조원들앞에 다시 신문을 들고 나갈것 같지 못했다. 잡지에서는 일어난다는 박연화동무는 남편 리광동무에게 사연을 털어놓았다. 리광동무는 안해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려는 당부의 결심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사실 그들의 내식구살림도 몹시 어려웠다. 조국에 들어타던 엄혹한 시련의 파도는 크지 않은 산골마을 이천땅에 다른 곳보다 더욱 합겨온 생활난을 들춰냈다. 철부지인 오누이 자식들의 작은 배도 채워주지 못하는 피로움, 일터에서 돌아오면 선동사업준비로 밤을 새우다싶이 하는 안해를 크게 도와주지 못한 자책감으로 무대기던 리광동무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잠을 자본적이 없었다. 어득색벽에 일어나 그 많은 아이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학교갈 차비를 해주고나서는 서둘러 신문이며 선동원수첩을 한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호미를 들고 남편진 포전에 이르자고 달음박질쳐가곤 했다.

그 모습에 감동된 마을의 녀인들은 벌신여 생겨도 그것을 들고 박연화동무의 집을 찾아왔고 리광군들은 떨갈 불어떨어떨아 달려왔다. 학교 교원들도 진로소의사들도 때없이 집에 들렸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온 이듬해 1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아침마다 아이들이 왜 서서서 손가락을 들고 서로 눈치만 보고있었다. 밤상위에 주전이 놓인 죽그릇을 아르게 바라보던 박연화동무는 왜 그러고만 있는 가고 물었다. 그러자 쫄뚱주머니하던 아이들이 입술달로 중얼거렸다.

«엄마! 총이가 생일때...»

«그래서 오늘이 자기 친구의 생일을 까 땅에 있었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때 어린 총이가 손가락을 댕- 하고 밤상위에 놓았다. 화들짝 놀란 다른 아이들이 덩달아 밤상위에 손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손가락들이 박연화동무의 가슴을 댕뚝 두드렸다.

총이가 뛰쳐나갔다. 서둘러 따라나선 박연화동무가 마당에서 딸을 불러내세웠다.

«네 때문에 다른 애들이 눈치바람 먹지 않나!»

어머니의 어깨가 세차게 떨렸다. 데려온 자식들 발끝에는 흰쌀밥을 싸주어도 달은 자식들 발끝에는 강냉이밥을 싸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는 친아들 편팡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 우리 생일은 생강하지 마세요.»

친자식도 어머니의 속을 태울진대 환귀 줄이 아닌 수십명의 자식들을 헌신술로 만들어 박연화동무는 얼마나 많은 속을 태웠을것인가.

늦도록 김을 매고 돌아오던 어느날 저녁 그는 길에서 녀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입팡이 하는 말이 선동원이 자기 친자식은 밤을 푹푹 눌러 담아주고 데려온 아이들은 글썽하게 퍼준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말 너지가 아니네...»

«아무렴 친자식처럼 정이 같가?»

억이 막혔다. 일시에 온몸의 기운이 폭 빠져지것만 같았다. 밥그릇을 받들 때마다 들었던달았다하며 저울질하곤 하던 입팡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박연화동무는 다음날부터 밤자격을 집안의 큰말인 단옥에게 들려주었다. 그때도 입팡이의 버릇은 총처럼 고쳐질줄 몰랐다.

«난 더 못 견디겠어요. 입팡이만은 돌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박연화동무의 두발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었다. 그녀는 안해를 목욕시키며 바라보던 리광동무가 힘주어 말했다.

«제 자식인데 버릇 나쁘다고 버려졌소? 더 용기를 내요. 그러기 밤자격이야 어머니가 들어야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어머니의 진정

농장원들은 박연화동무를 두고 타고난 선동원이라고 말한다. 그의 자식들같은 교원들은 박연화동무의 친생적인 교육자이긴 같다고 감탄하기도 한다.

박연화동무에 집의 하루일과는 온 마을의 관심사이고 화제가 되었다.

이른아침이면 기상구령이 울리고 아이들이 마당에 달려나와 제조를 하곤 했다. 제조가 끝난 뒤에는 집안밖과 마을길을 깨끗이 쓸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에는 마치 한학급처럼 형을 지어 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들어사곤 했다.

아이들이 렬을 때면 노래소리 량랑히 학교에서 돌아오는 때면 분조원들은 일손을 멈추고 선동원의 등을 떠밀곤 하였다.

어머니의 모습이 가까워지던 말이 불뿔이 는 처치제 구령을 쳤다. <노래 그만! -차렷! 우로 빛!> 아이들은 기다렸다는듯 팔을 옆에 붙이고 발을 높이 들면서 어머니 쪽으로 일시에 열을 돌리었다. 아직은 다리힘이 약해 트라기처럼 땅을 팡팡 구르지는 못해도 농장원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그들의 그대요 대너나 현대대이 느껴졌고 박연화동무는 마치 대대장, 렌대장처럼 보였다.

늘래끼 번드러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두고 농장원들모두가 감탄하였다. 박연화동무가 피준도 성적으로도 고함도 제모임인 수십명이 아이들을 한손의 손가락처럼 질서있게 등지게 하고 그들의 노래소리로 마을의 분위기를 일신시켰다는 그대로 농장원들은 교양하는 특유한 <직관선동>과도 같았다.

그의 집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제일 많았을 때는 23명이었다. 웬만한 중등학교의 한개 학급과 맞먹는다. 어머니앞에서 아이들은 마치 선생님이앞에서처럼 엄숙하고 순직하게 자기를 총화하였고 형제들의 잘못된 진실으로 비판하였다.

어느덧 30대의 청년으로 자라난 리원광 동무는 장년세차던 어린시절 남몰래 이웃집의 파일나무에 올랐던 자기의 결합을 놓고 피준도 성적으로도 고함도 제모임을 지금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결회하면 집을 뛰쳐나간 아이도, 밤투쟁을 늘 입에 달고다니던 아이도, 시험때마다 성적이 낮아 선생님의 애를 태우던 아이도 이런 총화모임을 거쳐 착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었다. 유형색의 아이들이라는 지칭이 사라지는 것은 매년 달랐지만 그런 모임의 뒤결에 어머니가 하는 말은 늘 같았다.

«오늘결합을 꼭 고쳐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훌륭한 인민군대로 영웅도 박사도 될수 있다.»

어느 가을날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사던 박연화동무는 우뚝 멈춰섰다. 큰애들은 없고 작은아이들만 근심에 잠겨 오구구 모여있었던것이다.

«이 밤중에 오빠들은 다 어떡 갔어?»

만사람을 울린다

단옥이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여졌다.

«우리하고 고아라고 불러준 애를 혼내버려야겠어...»

박연화동무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큰애들이 무리지어있었다는 시내가 바로 달랐다. 그날 총화모임시간이었다. 비뻔하는 아이도, 비뻔한 아이도 없는 류다른 모임이었다. 아이들은 목욕터 어머니의 말만 기다렸다. 잠시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연화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모두가 잘모했다. 너희들도 칭형제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이 울린 그대도 칭형제나 같애. <세상에 부럽었어!>노래를 새겨보라.»

어머니의 꾸깃음에 아이들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날 밤에 자기들이 울린 마을애가 자기 부모에게서 얼마나 된구 지팠을 들었는지 모르고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놓고 학교의 선생님들, 리광위원회의 일꾼들도 얼마나 심각한 자책속에 한밤을 새웠는지 더더구나 알지 못하고있었다.

박연화동무가 데려온 아이들은 산관에 되는데로 뿌려져 제멋대로 자라던 애러인 나무들보다도 같았다. 박연화동무는 그런 어린 나무들을 기를전 양묘장에 떠올려 놓고 심는단 큰 나무들로 키웠다. 그 어린 나무들의 버림받은 무엇이었던가.

그의 집 터밭에는 거의 절반면적을 차지 하는 양묘장이 있었다. 낱알 한푼이 더없이 귀한 때였고 한배기의 땅도 큰 보탬으로 되었다.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우리가 처음 만나던 때가 생각나요? 쉽지 못한 강녕이영양단지도 찾아 심던 것 마음어린 뒤요.»

아이들의 머리를 일일이 쓰다듬는 박연화동무에게는 남편과 처음 인연을 맺던 잊을수 없는 그 봄날이 떠올려졌다.

신당약수료양소에서 치료를 받던 어느날 점심집에 박연화동무는 개울가 가까이 발리에서 심지 못한 몇모양의 강녕이영양 단지도를 보게 되었다.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대로 두면 지나갈수가 없었다. 한포기, 한포기 강녕이영양단지도 심기 시작할 때 포전 저쪽에서 한 청년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금방 강녕이를 심어놓았는데 거기서 뭘 하요?»

썩썩거리며 처녀가 있는 곳으로 다가서던 청년의 눈이 금시 감동의 빛으로 다가어 들었다.

«교습소.»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갈 농사꾼이 어디 있나요?»

어디에서든 농사꾼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는 그 진심에 끌려 신당리의 청년분조장은 개천의 처녀농장원에게 청혼을 했다. ... 10명 자식의 어머니가 된 그날 밤 박연화동무는 아이들의 이불깃을 푹푹히이며며주며 오래도록 잠 못 드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였다.

(난 선동원의 의무감으로 결심했었는데 저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들을 데려왔구나.)

농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는 남편 리광동무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다. 마을사람들과 리의 일꾼들이 그를형제를 키워주었다. 당의 품에서 그는 21살에 분조장,

잠을 자본적이 없었다. 어득색벽에 일어나 그 많은 아이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학교갈 차비를 해주고나서는 서둘러 신문이며 선동원수첩을 한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호미를 들고 남편진 포전에 이르자고 달음박질쳐가곤 했다.

그 모습에 감동된 마을의 녀인들은 벌신여 생겨도 그것을 들고 박연화동무의 집을 찾아왔고 리광군들은 떨갈 불어떨어떨아 달려왔다. 학교 교원들도 진로소의사들도 때없이 집에 들렸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온 이듬해 1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아침마다 아이들이 왜 서서서 손가락을 들고 서로 눈치만 보고있었다. 밤상위에 주전이 놓인 죽그릇을 아르게 바라보던 박연화동무는 왜 그러고만 있는 가고 물었다. 그러자 쫄뚱주머니하던 아이들이 입술달로 중얼거렸다.

«엄마! 총이가 생일때...»

«그래서 오늘이 자기 친구의 생일을 까 땅에 있었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때 어린 총이가 손가락을 댕- 하고 밤상위에 놓았다. 화들짝 놀란 다른 아이들이 덩달아 밤상위에 손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손가락들이 박연화동무의 가슴을 댕뚝 두드렸다.

총이가 뛰쳐나갔다. 서둘러 따라나선 박연화동무가 마당에서 딸을 불러내세웠다.

«네 때문에 다른 애들이 눈치바람 먹지 않나!»

어머니의 어깨가 세차게 떨렸다. 데려온 자식들 발끝에는 흰쌀밥을 싸주어도 달은 자식들 발끝에는 강냉이밥을 싸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는 친아들 편팡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 우리 생일은 생강하지 마세요.»

친자식도 어머니의 속을 태울진대 환귀 줄이 아닌 수십명의 자식들을 헌신술로 만들어 박연화동무는 얼마나 많은 속을 태웠을것인가.

늦도록 김을 매고 돌아오던 어느날 저녁 그는 길에서 녀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입팡이 하는 말이 선동원이 자기 친자식은 밤을 푹푹 눌러 담아주고 데려온 아이들은 글썽하게 퍼준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말 너지가 아니네...»

«아무렴 친자식처럼 정이 같가?»

억이 막혔다. 일시에 온몸의 기운이 폭 빠져지것만 같았다. 밥그릇을 받들 때마다 들었던달았다하며 저울질하곤 하던 입팡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박연화동무는 다음날부터 밤자격을 집안의 큰말인 단옥에게 들려주었다. 그때도 입팡이의 버릇은 총처럼 고쳐질줄 몰랐다.

«난 더 못 견디겠어요. 입팡이만은 돌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박연화동무의 두발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었다. 그녀는 안해를 목욕시키며 바라보던 리광동무가 힘주어 말했다.

«제 자식인데 버릇 나쁘다고 버려졌소? 더 용기를 내요. 그러기 밤자격이야 어머니가 들어야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이천땅의 붉은 선동원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박연화동무앞에 조선로동당규약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박연화동무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념원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가슴속서원을 헤아려본 당초포비서 그의 눈빛에서 그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원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 아직... 애들도 훌륭히 키우고 우리 분조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 그때 가서 입당청원서를 쓰겠습니다.»

당초포비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박연화동무의 심장속에 그려져있는 당원의 모습은 그릇듯 숭고하고 아름다운 참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여,

박연화동무가 입당청원의 고백을 신통타놓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심장에 손을 얹고 서보시라.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고 자신의 인간들의 높이를 비추어보시라. 음당 해가 할 일을 하고, 나라에 존조마한 보탬을 놓고 서둘러 자신의 영애와 평가를 생각한다는 과업 없었는가...

은근한 마음으로 들어온 리광수 동무가 박연화동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

인재 육성에서 비약을 안아올 불라는 열의

수재 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를 두고

오늘 전반기 12년제의무교육의 실사와 함께 강릉국가건설에 이바지할 인재들을 키우는 사업에 밀려가 되고 뿌리가 되는 교육자들의 열의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제1 중학교를 설치하시어 30년을 맞으며 열매진 교육일꾼들과 교육자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수재 교육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민족의 위력을 떨치는데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수재 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 진행되던 평양제1 중학교는 많은 참관자들이 붐비었다. 각지의 제1 중학교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이 한결같이 보였다. 그날 평양제1 중학교를 다녀가신 15명의 산간마을 농장원사실들을 공부시키는데 분교에서 새로 나왔고 그해 개학날 분교에서 배운 첫 종소리 울었다. 그 종소리는 농촌학생들의 가슴속에 희망찬 꿈을 안겨주었다.

그날 이 교장의 농민들은 배움의 종소리를 높이 울려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승고한 후대사람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그후 어머니수령님께서 두 메산골의 농장원사실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잊지 않으시고 수심집에 달하는 현대적인 교육 설비들을 보내주셨다. 어린이들이 나래의 향으로 내세우시고

불러일으켰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모든 과목들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국제수학을 립력 우수자들과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평양제1 중학교, 창덕학교, 동명학교 1 중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들이 전시한 성과자료들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우리는 뛰어난 학생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다는 신의주제1 중학교의 전시대안에서 맡겨줄음을 멈추었다.

2중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여러 명의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우수자료를 키워낸 이 학교의 자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인터넷 프로그래밍대항전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인터넷상에 공화국기를 높이 피운 대학생들속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인 자기 학교 졸업생들도 있었다. 그 공지에 넘쳐 달하는 교장의 말씀에 우리는 후대교육을 위해 기꺼이 나아가고 있는 이 학교 교육자들의 커다란 관심과 열의를 접목시켰다.

하루 가두어두면 느낄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다목적 경연에서도 이 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는 남다른 자랑을 지난 10년 동안 학교가 성취한 수십개의 금메달이 다 말해주고 있었다.

김정숙제1 중학교에서는 지난 기간 교육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이룩한 성과자료들을 많이 전시하였다. 새 교수방법 탐구 집, 현실문제집, 교수자료집 등 전시된 다양한 자료들마다에는 앞날의 최첨단과업의 1번수들을 키워내기 위해 모든 정력과 창조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바쳐온 이룩 교육자들의 피라는 노력이 그대로 승배되어 있었다.

모란봉제1 중학교에서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자료들을 전시한 것도 특색이 있었다. 이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학교정보시스템, 전자수업체계, 원격수업체계, 교육행정관리체제로 구성된 여느데 이 체계는 교수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 교육행정 사업을 개선하게 하는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학교들은 나라의 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이다. 그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의 헌신과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깊이 되새겨보게 하는 이번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가지는 의의는 컸다.

《이번 수재 교육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지식경제시대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에서 더 큰 비약을 안아올 확고한 신념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구성제1 중학교 교장이었던 한 선생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고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경험도 서로 나누고 새로운 결심으로 교육자들의 가슴을 더욱 넓어지게 한 이번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는 우수한 교육방법들을 일반화하여 교육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게 하는 것으로 의의가 깊을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수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런 교수내용을 잘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킬 수 없다.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동대원구역 문신소학교에서는 소학교학생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새 교수방법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전반적 수업능력에 대한 인식능력과 학과실력을 현저히 높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실물을 통한 새 교수방법에 있다.

지난 시기에도 학교에서는 직관과 실물을 통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는 게 하는데 있었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직관 물이나 실물을 한번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데 그쳤지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실사 먼저 보게 하고 보고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이 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새 교수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해당한 교편 물들을 배치한 다음 학생들을 4-6명씩 모아앉히고 먼저 교

미래를 위해 아낄 것이 없다

대외건설지도국 중기사업소는 한걸음 한걸음 건설대상물과 더불어 할 일이 많고 늘 바쁜 속에서다. 그처럼 바쁜 속에서도 이 곳 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언제나 놓치지 않고 증시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 지원 사업이다.

우리 당의 승고한 후대사람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에 깨끗한 향신을 바쳐가는 사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의 뜨거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아끼고 보살피는 것이냐는 것은 우리 혁명의 미래와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어느날 이 곳 중기사업소에서는 일꾼들을 만나러 왔던 청년이 한 단어가 들어왔다. '향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향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향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은 유치원의 난방설비가 불비하다니는 말을 들었다. 때에 때에 발보와 난방관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수십 개의 석탄도 보장해주었다.

새 학년도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3월에는 여러가지 교편물들과 지능놀이감, 추구공 등도 생겼지만 우리가 용량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흔쾌히 말할 때 원장은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때때 유치원을 찾아오는 사업소 일꾼들은 백두산 3대장군 교향시사관유리를 새로 교체하는 사업을 성심껏 도와주었고 아이들의 교육요구에 필요한 텔레비전수상기와 목욕탕도 마련하여 안겨주었다.

사업소 당원 일꾼인 강영수 동무는 아이들의 출신성분 교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예수가 없었다. 그는 백두산 3대장군을 따라배우는 교양실들에 모셔져있는 도록책들을 교재하는 사업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직접 액자를 만들어주었고 필요한 액자를 마련해왔으며 하루에 몇 번씩 유치원에 나와 도록책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교양실현관들도 새로 몇몇을 만들어 걸어주었다.

아이들의 튀김이 깨끗한 마음 속에 간직되는 백두산전세위인들에 대한 충실성은 자그마한 활동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가 늘 하던 말이다.

이뿐이 아니다. 사업소 일꾼들은 유치원의 난방설비가 불비하다니는 말을 들었다. 때에 때에 발보와 난방관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수십 개의 석탄도 보장해주었다.

그 사랑 전하는 산촌의 종소리

시중군 안전고급중학교 신발분교에서

땀, 땀, 두메산촌의 고요를 깨며 종소리가 울린다. 수업시간을 울리는 종소리이다.

시중군 안전고급중학교 신발분교의 창가에서 울리는 배움의 종소리. 노래소리는 룬다. 새로운 산촌의 정서를 한결 불러일으킨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학과기기가 너무 먼데는 분교를 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차강기숙의 외진 산촌에 농촌학생들을 위해 훌륭한 분교가 생겨나게 된다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업이 이루어졌다.

주제 53 (1964)년 5월 어느날이었다.

자신군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신 어머니수령님께서 시중군 안전리를 지나가시다 강변의 한 나무에서 여러명의 학생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승용차를 멈추게 하시었다. 학생들이 강변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하여 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 어머니수령님께서 언덕에 오르신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는 시중군 안전리는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지역으로 갈라져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수 있다고 하시기 학생들에게는 배를 내오도록 은정깊은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러시고는 학생들이 강을 건네게 하지 말고 교편들이 강을 건너가서 분교의 학생들을 공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한 당부 말씀하시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시중군 안전리를 떠나가신 이듬해 15명의 산간마을 농장원사실들을 공부시키는 분교가 새로 나왔고 그해 개학날 분교에서 배운 첫 종소리가 울었다. 그 종소리는 농촌학생들의 가슴속에 희망찬 꿈을 안겨주었다.

그날 이 교장의 농민들은 배움의 종소리를 높이 울려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승고한 후대사람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그후 어머니수령님께서 두 메산골의 농장원사실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잊지 않으시고 수심집에 달하는 현대적인 교육 설비들을 보내주셨다. 어린이들이 나래의 향으로 내세우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싶어서는 어머니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배움의 산간지역 학생들의 푸른 꿈과 희망, 재능이 꽃피는 베품의 은포, 후대교육의 지역적거점으로 훌륭히 꾸러지게 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우리 당의 승고한 미래사망에 의해 분교의 면모는 달라지게 되었다. 단층옥조건물이던 분교가 2층으로 현대적이건 이새 개건되고 최신교육설비들이 그흔히 갖추어졌다. 넓은 운동장이 새로 꾸며지고 분교의 내외부 교육환경이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러졌다.

지금 분교에서는 안전협동농장 출신 1작업반 농장원들의 23명 자녀들이 마음껏 배우며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 있다.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이며 미래의 후대들을 위한 헌정성 모듬것을 다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승고한 후대사람을 길이 전하며 분교의 종소리는 오늘도 산촌의 고요를 흔들며 유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새 교수방법을 적극 탐구할 때

동대원구역 문신소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수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런 교수내용을 잘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킬 수 없다.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동대원구역 문신소학교에서는 소학교학생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새 교수방법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전반적 수업능력에 대한 인식능력과 학과실력을 현저히 높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실물을 통한 새 교수방법에 있다.

지난 시기에도 학교에서는 직관과 실물을 통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는 게 하는데 있었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직관 물이나 실물을 한번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데 그쳤지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실사 먼저 보게 하고 보고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이 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새 교수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해당한 교편 물들을 배치한 다음 학생들을 4-6명씩 모아앉히고 먼저 교

원 문제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교편물들을 먼저 보고 설명해보면서 서로서 토론하여 제시된 문제의 답을 찾는다.

그 과정을 통하여 능동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게 된다. 새 교수방법을 적용하니 효과는 대단히 좋았다.

우선 학생들이 재미있어하고 수업집중률과 발표능력이 부쩍 높아졌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만나보고 실험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체득하고 스스로가 된 것을 인식할 수 있어 교수목적도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의 실험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학교에서는 새 교수방법과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실물을 통한 새 교수방법의 비중을 높여나갔다.

사회주의도덕을 비롯한 다른 과목들에 도 실물을 통한 교수방법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교양사업에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에 이르기 위하여 선행하여 모내기의 이어나가 귀중한 성과였다.

발견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리원시 상하초급중학교에서— 본사기자 립학 락 찍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30일 유구성중급고급학교 교장 전시회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원들은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위하여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

경모의 정에 대한 잊지 못할 수은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국방문단원들은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위하여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

동을 악랄하게 강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김정은각하의 평도밀에 조선인들이 취하고있는 길에서 정정적으로 진행하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성을 위한 투쟁에서 능동성을 발휘함으로써 확고히 이루어지고 동시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세워주고 나래에 대한 경애하는 인민의 힘을 높이고 있는 김정일동지께서

시당위원회는 조선노동부에서 시대의 선전선동력을 총동원하여 수도의 농장원들이 부끄럽게 풀이되지 않도록 화살선전, 화살선동을 즐기게 진행하였다.

일꾼들의 치밀한 경제조직사업과 결집되는 정치사업이 안받침되어 모내기를 제때에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사중, 선안구역에서는 농업근로자와 지원자들의 드높은 열의의속에 많은 농장원들이 지난해보다 한주일이나 앞당겨 모내기를 결속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구역의 농장원에서는

동을 악랄하게 강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김정은각하의 평도밀에 조선인들이 취하고있는 길에서 정정적으로 진행하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성을 위한 투쟁에서 능동성을 발휘함으로써 확고히 이루어지고 동시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세워주고 나래에 대한 경애하는 인민의 힘을 높이고 있는 김정일동지께서

시당위원회는 조선노동부에서 시대의 선전선동력을 총동원하여 수도의 농장원들이 부끄럽게 풀이되지 않도록 화살선전, 화살선동을 즐기게 진행하였다.

일꾼들의 치밀한 경제조직사업과 결집되는 정치사업이 안받침되어 모내기를 제때에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사중, 선안구역에서는 농업근로자와 지원자들의 드높은 열의의속에 많은 농장원들이 지난해보다 한주일이나 앞당겨 모내기를 결속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구역의 농장원에서는

모내기가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평양시의 농촌들에서

평양시의 농촌들에서 모내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9일현재 사동구역, 선안구역을 비롯한 구역, 군의 많은 농장원들이 무거운 책임을 지고 기본적인 모내기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능동성을 발휘함으로써 확고히 이루어지고 동시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세워주고 나래에 대한 경애하는 인민의 힘을 높이고 있는 김정일동지께서

시당위원회는 조선노동부에서 시대의 선전선동력을 총동원하여 수도의 농장원들이 부끄럽게 풀이되지 않도록 화살선전, 화살선동을 즐기게 진행하였다.

일꾼들의 치밀한 경제조직사업과 결집되는 정치사업이 안받침되어 모내기를 제때에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사중, 선안구역에서는 농업근로자와 지원자들의 드높은 열의의속에 많은 농장원들이 지난해보다 한주일이나 앞당겨 모내기를 결속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구역의 농장원에서는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괴뢰정보원 첩자 김정욱에 대한 재판 진행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괴뢰정보원 첩자 김정욱에 대한 재판 진행

5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김정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복역모욕), 제64조(감봉), 제62조(반국가선전, 선동죄), 제21조(비밀국정누설죄)에 해당되는 괴뢰사 김정욱의 사정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자가 제출되었으므로 사실심리가 진행되었다.

심리과정에서 괴뢰사 김정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인정하며 유죄를 인정하였다.

판사는 김정욱의 행위는 국정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민의 이익을 해하여 국가의 존엄을 손상시켰다. 김정욱은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죄를 인정하고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인정하며 유죄를 인정하였다.

판사는 김정욱의 행위는 국정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민의 이익을 해하여 국가의 존엄을 손상시켰다. 김정욱은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죄를 인정하고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인정하며 유죄를 인정하였다.

월남인민군 총참모부 군사훈련국대표단 여러 곳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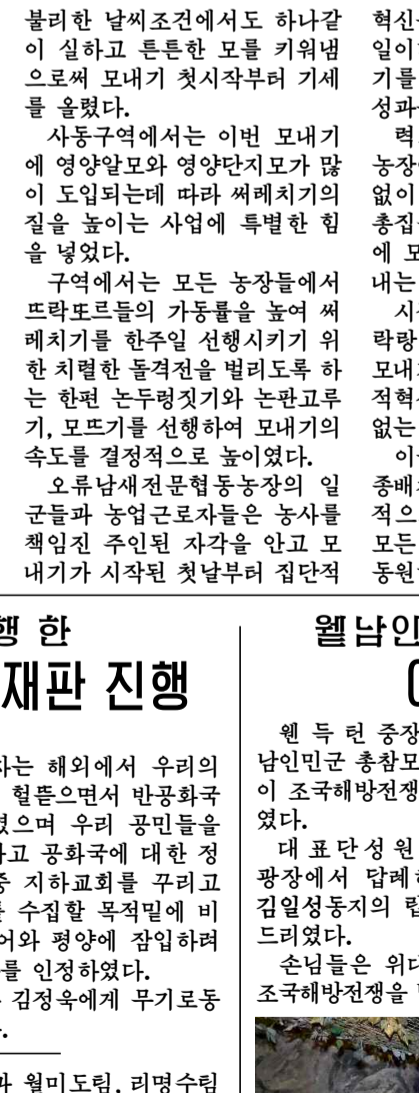
월남인민군 총참모부 군사훈련국대표단 여러 곳 참관

월남인민군 총참모부 군사훈련국대표단 여러 곳 참관을 하였다.

월남인민군 총참모부 군사훈련국대표단 여러 곳 참관을 하였다.

월남인민군 총참모부 군사훈련국대표단 여러 곳 참관을 하였다.

월남인민군 총참모부 군사훈련국대표단 여러 곳 참관을 하였다.



월남인민군 총참모부 군사훈련국대표단 소극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였던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귀국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였던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귀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나이지리아국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공동위원회 제4차회의에 참가하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였던 리명산 무림시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30일 귀국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자신의 충심을 보이는 인사를 전하여 드림것을 부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자신의 충심을 보이는 인사를 전하여 드림것을 부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자신의 충심을 보이는 인사를 전하여 드림것을 부탁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를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를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를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아시아 래프양지사무소 책임자 일행이 떠나갔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아시아 래프양지사무소 책임자 일행이 떠나갔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아시아 래프양지사무소 책임자 일행이 떠나갔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아시아 래프양지사무소 책임자 일행이 떠나갔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아시아 래프양지사무소 책임자 일행이 떠나갔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아시아 래프양지사무소 책임자 일행이 떠나갔다.

